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7. 14.(화) 17:00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서·남해 제주 연안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7월 14일(화) 18시부터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현재단계) → 경계 → 심각 1단계 → 심각 2단계

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올해 예비특보는 작년(7월 3일)보다 11일 늦게 발표되었는데, 이는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강수량이 늘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 주요 연안 수온(7월 13일 13시 기준) : 충남 서산(26.7°C), 전남 함평(27.6°C), 전남 해남(23.9°C), 전남 보성(27.6°C), 여수 신월(26.0°C), 경남 남해(26.2°C), 서제주(24.3°C)

** 예비특보: 해역의 수온이 25°C에 도달하였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026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 ▲전국 210개소 수온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수온정보를 관찰하여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지방 정부와 어업인에게 안내하고 있고, ▲10개 광역지방정부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 사전 보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하였다.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고수온 비상 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중우 해수부 장관은 “현재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양식장 준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라며, “어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조기 출하, 사육밀도 조절, 대응장비 점검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담당자	사무관	김 환 (051-773-5392)
			주무관	남정희 (051-773-5621)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김형철 (051-720-2750)
			연구사	이시우 (051-720-2751)
			연구사	박태규 (051-720-2752)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해역

